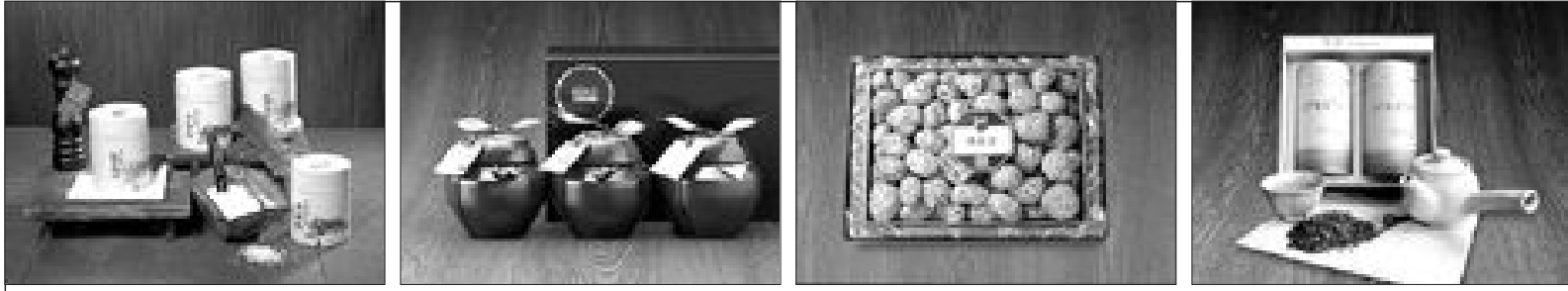


경제



신안 '천해의 미소' 천일염 세트 '대한민국 3대명인' 된장 강진한지 백화고세트 나주 '동이나라 유기농 뽕양차 세트'

금남지하상가 점포 84곳 결국엔 공개 입찰

원분양자-세입자 합의서 제출 못해

광주시가 금남지하상가 1공구 94개 점포에 대한 임대 계약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냈다. 이들 점포들이 임대신청 과정에서 원분양자와 세입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제계약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점포가 합의서 제출에 실패한 것은 최초 분양 이후 수차례 임대양수 끝에 최근야 분양권을 매입한 분양자들의 피해와 반발이 큰데다, 점포당 1천만~2천만원에 이르는 임대보증금이 걸림돌이 됐다는 광주시 등의 분석이다.

추석엔 '고향의情' 선물 어떨까

광주 백화점들이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된 추석 선물세트를 앞세워 '고향 마케팅'에 나섰다. 된장·토종 꿀·한우·토종 김·표고·천일염 등 갖가지 특산품으로 출항 인사들에게 '고향의 정'을 선물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광주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 된장·표고·한우세트 앞세워 출향인 겨냥 '특산물 마케팅'

광주신세계백화점은 5년 이상 숙성한 간장세트를 15만원에 내놓는다. 담양 고추 문종에서 360년간 전해진 비법으로 10대 중부 기순도까지 직접 담근 간장이다. 또 나주에서 35년간 전통 양봉을 고집해 온 김희성씨가 재배한 전통꿀 '나주 가보 프리미엄 고가구 토산꿀'(6만원대)을 내놓는다.

닫근 것으로 전통참살고추장, 굴비장아찌, 덕덕장아찌, 매실장아찌 등으로 구성된 제품이다. 이밖에 친환경 지리산 한우로 구성된 '한우 알뜰세트'(2.8kg·17만원대)를 비롯해 '남도미향 토종김 세트'(10만원대), '나주 수삼세트'(13만·18만·25만원대), '완도 덕우도 활 전복세트'(15만원), '담양한과 하늘엔'(8만·25만원대) 등도 선보인다.

현대백화점 광주점도 '장흥 표고버섯'(5만~10만원대), '완도 전복세트'(20만원대) 등 지역 우수 특산품을 대거 선보일 계획이다. 추석선물세트는 광주신세계백화점이 9월 14일~10월4일까지,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9월 18일부터 10월5일까지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김윤중 영업총괄팀장은 "이번 추석선물세트에는 지역 특산품을 대폭 보강했다"며 "지역 상품의 판로개척을 돕고 전국적인 명품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형제의 난' 금호 박 전 회장 "법적 대응"

공식 법률 대리인 지정

박찬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화학 부문 회장이 지난 7월 '형제의 난' 이후 한달만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 대응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산지는 1일 본지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박 전 회장의 대외 입장을 공식대변하는 일을 맡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산지는 이메일에서 "박찬구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박삼구 명예회장과 이사들에게 이사회 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자인하고 사태해결에 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첨부문서를 보냈지만,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삼구 명예회장이 박찬구 전 회장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진실을 은폐한 언론플레이를 펼쳤다고 밝혔다. 산지는 또한 "이사회가 박 전 회장

에 대한 해임사유로 언급한 '재무구조 개선약정서 날기거부'와 '다른 대표이사의 인감 반환거부'는 대우건설 풋백 옵션에 따른 경영상 책임을 금호석유 화학과 다른 계열사에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금호그룹이 처한 위기에 대해서도 "박삼구 명예회장의 전횡과 과욕, 그릇된 현실인식으로 인한 문어발식 몸집 불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찬구 전 회장이 공식 대외 청구로 박삼구 명예회장을 지정함에 따라 해임조치의 부당성을 따지는 소송 등 일련의 법적조치에 나설 뜻을 공식화함과 동시에 조만간 실제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박삼구 명예회장은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선거 끝나면 대치도 끝나나

오늘 금호타이어 노조 집행부 선출

2일 치러지는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장 선거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출마자들이 정리하고 철화·임금 보전 등 현 집행부와 유사한 공약을 내걸고 있긴 하나, 선거 이후 집행부가 새로 꾸러지면 대치국면을 해소할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부 후보들은 '무분별한 투쟁 중단'이나 '쟁의행위 유보' 등을 주장하고 있어 이런 기대에 힘을 실어준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금속노조 선봉대가 아니다"며 삼급단체인 금속노조와의 거리 두기를 시도하는 후보도 나왔다.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현장의 힘', '민주노동자회', '실천연대' 등 3개의 현장노동운동조직을 대표하고

있다. 현 지회장이 고공서 후보는 "물러서면 죽는다"며 당선되면 현행 투쟁 방식을 계속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승철 후보는 당선 뒤 곧바로 쟁의행위를 중단하는 '평화기간'을 설정하고 상황을 조기에 종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근철 후보는 금속노조 재평가 공약을 내걸었다. 노조원들의 의견을 향후 금속노조의 투쟁 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2일 오전 10시20분부터 조합원 3천900여명이 참여하는 투표를 거쳐 임기 2년의 3기 지회장을 선출한다. 이날 오후 3시쯤에 당선자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면역력 강화엔 홍삼이 최고

광주신세계백화점은 1일 면역력 강화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홍삼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가격은 홍이장군 12만원, 홍삼골드 16만원. (광주신세계백화점 제공)

광주 중소기업 롯데아울렛 사업조정 신청

광주지역 중소기업들이 전국 의류류 판매업체 최초로 롯데아울렛을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1일 광주의류판매연합회(이하 의류협회)는 "2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 롯데아울렛 광주 수완점 상향로 사업조정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류협회는 "롯데아울렛 월드점점 에 이어 수완점까지 개점한다면 지역

의류판매업체는 치명타를 맞게 된다"며 "대기업의 과도한 지역상권진출을 막고 지역 경제와 지역 의류업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사업조정 신청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 실태 조사 후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중소기업체에 제출하게 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Index and Value. Includes 코스피지수 (1,623.06), 코스닥지수 (516.27), 금리 (4.37%), and 원·달러 환율 (1,240.70원).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a table of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in various areas like Gwangju, Gyeongju, and Seoul.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website URL.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uwan Real Estate, featuring a large '수완지구' (Suwan District) title and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website URL.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dong Real Estate, featuring a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Motel, Bathhouse, and various commercial buildings) listing.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website URL.